

인쇄업 2007년 상반기 내수 불안 여전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서

〈표1〉 2006년, 2007년 상반기 출판·인쇄업 BSI (2006년/2007년)

BS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업황	90/71	84/75	97/77	89/77	75/85	75/78
매출증가율	94/88	96/90	101/85	92/94	99/94	86/80
수출증가율	88/61	88/88	93/72	83/81	85/88	78/75
내수판매증가율	94/92	97/87	100/86	96/93	100/94	88/80
생산증가율	101/99	97/102	108/96	100/97	103/99	100/93
신규수주증가율	97/91	90/95	104/85	96/92	99/103	90/85
제품재고수준	108/104	107/106	101/101	105/105	108/104	103/103
가동률	97/97	94/102	105/100	96/98	101/104	91/93
생산설비수준	97/101	104/102	99/101	99/100	101/99	101/100
설비투자실행	94/94	100/95	101/97	97/102	104/97	100/102
채산성	85/85	88/85	99/89	94/90	91/101	91/94
원재료구입가격	112/105	110/108	113/104	108/103	107/103	110/100
제품판매가격	100/100	96/94	97/97	97/98	99/99	95/97
자금사정	92/92	97/78	104/92	100/93	96/96	89/94
고용수준	94/91	95/93	99/96	94/96	93/88	101/95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상반기 인쇄업계는 지방선거 호재가 있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내수경기는 부진했던 반면에 주춤했던 수출실적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07년도 BSI 통계에 따르면 출판·인쇄업은 전장후약을 보였던 2006년도 상반기와 달리 전장후강의 결과를 보였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3월과 4월에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BSI 수

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는 거의 전부문에서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됐다. 다만 5월부터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하반기 경기에 기대감을 남겼다.

업계 전체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업황은 71(1월), 75(2월), 77(3월), 77(4월), 85(5월), 78(6월) 등 71~85를 나타내 75~97에 이르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단, 5월과 6월이 각각 85와 78을 기록, 지난해 두 달 연속 75를 보였던 것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업황실적에 따라 86~101, 88~100이었던 매출증가율, 내수판매증가율도 다소 낮아진 80~94, 80~94를 기록했다. 78~93이었던 수출증가율은 61~88로 조금 더 낮아졌다. 생산증가율은 97~108에 이르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5포인트 가량 하락하며 93~102를 기록했으며 신규수주증가율도 90~104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낮아진

〈표2〉 2006년, 2007년 상반기 중소기업 BSI (2006년/2007년)

BSI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업황	83/80	78/80	89/83	88/85	82/87	79/87
매출증가율	95/95	93/100	105/101	105/102	97/104	97/105
수출증가율	95/96	94/100	102/103	102/101	92/105	92/102
내수판매증가율	94/90	92/96	99/98	104/98	94/97	93/99
생산증가율	98/94	98/99	107/101	109/103	102/105	99/105
신규수주증가율	96/92	93/98	103/98	105/100	96/101	93/100
제품재고수준	107/110	107/108	104/107	103/105	105/105	107/107
가동률	98/92	96/97	105/99	107/101	99/101	95/102
생산설비수준	100/104	99/103	96/102	97/101	99/101	102/101
설비투자실행	100/96	99/96	102/97	101/99	102/100	99/100
채산성	82/85	82/85	88/87	87/86	81/86	83/84
원재료구입가격	110/111	109/109	115/118	118/124	126/128	124/125
제품판매가격	90/90	90/91	94/97	96/100	97/101	95/99
자금사정	89/87	83/89	90/91	89/89	83/91	84/91
고용수준	90/96	90/97	86/95	91/94	91/95	91/95

자료 : 한국은행

85~103을 기록했다. 가동률과 채산성은 93~104, 85~101을 기록해 85~99였던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했다. 이 외 생산설비수준, 설비투자 실행이나 원재료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자금사정, 고용수준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BSI, 중소기업 평균보다 떨어져

이러한 올 상반기 출판·인쇄업의 BSI 수치는 거의 전부에서 중소기업의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거의 전부분이 중소기업의 평균치와 비슷했다.

경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항목인 업황 및 가동률은 중소기업이 80~87, 92~102였으며 출판·인쇄업은 71~85, 92~102였다. 이외 매출증가율, 내수판매증가율, 생산증가율, 신규수주증가율 등도 대체로 중소기업보다 약간 낮았다. 수출증가율은 96~105를 넘나든 중소기업이 61~88에 머문 출판·인쇄업보다 상당히 높았다. 다만 채산성은 85~94를 기록한 출판·인쇄업이 84~87에 그친 중소기업보다 다소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소기업의 BSI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출판·인쇄업의 BSI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점이다.

인쇄물 수출입 각각 7.8%·16.2% 증가

관세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실적은 9747

만1천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실적인 9044만1천달러보다 7.8% 증가하고 인쇄물 수입액도 1억7036만3천달러에 달해 1억4658만4천달러였던 전년 동기 대비 16.2% 늘었다.

이와 같은 인쇄물 수출실적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했던 지난해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6.2%가 늘어난 인쇄물 수입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의 17.1%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인쇄기자재 수출입실적은 지난해와의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인쇄기자재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인쇄기의 HS코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HS코드 4단위 분류 인쇄기 부문에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무용프린터, 복합기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인쇄기자재 수출실적은 6억9295만6천달러를 기록 2006년 상반기의 9152만2천달러보다 657.1% 증가했고 인쇄기자재 수입실적도 9억415만6천달러에 달해 2006년 상반기의 2억6686만1천달러에 비해 238.8% 늘었다.

인쇄서적·소책자·리플렛 24.8% 늘어 증가세 주도

인쇄물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는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은 전년 동기 실적인 4108만1천달러 대비 24.8% 증가하며 5128만3천달러에 달해, 증가세를 주도했다. 설계도와 도안도 400만1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

〈표3〉 2006년, 2007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입 실적

(단위 : 미화 천달러, %)

구분	인쇄물 수출		증감	인쇄물 수입		증감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41,081	51,283	24.8	80,547	103,782	28.8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3,694	2,436	-34.1	10,107	10,750	6.4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804	662	-17.7	5,336	10,417	95.2
악보	7	19	171.4	718	1,370	90.8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208	158	-24.0	1,654	1,573	-4.9
설계도와 도안	1,355	4,001	195.3	118	171	44.9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79	56	-29.1	1,826	1,406	-23.0
전사물	7,974	7,595	-4.8	19,680	16,882	-14.2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2,539	2,453	-3.4	1,315	1,830	39.2
캘린더	18,461	14,637	-20.7	460	179	-61.1
기타 인쇄물	14,185	14,171	-0.1	24,823	22,003	-11.4
합계	90,441	97,471	7.8	146,584	170,363	16.2

〈표4〉 2006년, 2007년 상반기 인쇄기자재 수출입 실적

(단위 : 미화 천달러, %)

구분	인쇄기자재 수출		증감	인쇄기자재 수입		증감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제책기계	2,452	4,110	67.6	12,061	20,762	72.1
제지용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	32,062	31,739	-1.0	23,853	19,968	-16.3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	1,327	880	-33.7	3,398	4,732	39.3
인쇄기	55,365	655,426	1,083.8	223,996	855,912	282.1
인쇄제판용의 카메라	0	13	-	823	1,006	22.2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현상기기	316	788	149.4	2,775	1,776	-36.0
합계	91,522	692,956	657.1	266,861	904,156	238.8

인 135만5천달러보다 195.3% 늘어나며 증가세를 부채질했다. 그리고 지난해 7천달러를 기록했던 악보는 올 상반기 동안 1만9천달러치가 수출됐다. 이외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243만6천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369만4천달러보다 34.1% 감소했고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66만2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80만4천달러보다 17.7% 줄었으며,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은 5만6천달러 수출되는데 그쳐 전년 동기 실적 7만9천달러보다 29.1% 감소했다. 전사물은 797만4천달러였던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759만5천달러치가 수출되는데 그쳤으며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와 캘린더는 각각 245만3천달러, 1463만7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253만9천달러, 1846만1천달러보다 각각 3.4%, 20.7% 감소했다.

기타인쇄물은 전년 동기 실적인 1418만5천달러보다 0.1% 줄어든 1417만1천달러를 기록했다.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거의 두 배 증가

인쇄물 수입실적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이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8054만7천달러에서 28.8% 증가한 1억378만2천달러

〈표5〉 2006년, 2007년 상반기 인쇄제판용PS판·사진필름 수입동향 (단위: 미화 천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및 사진필름(천연색용)	365	304	-16.7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및 사진필름 (각변의 길이가 255mm 초과하는 것)	22,433	32,098	43.1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 및 사진필름(기타)	680	799	17.5
인쇄제판용 롤상 사진필름 (폭이 610mm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것)	92	0	-
인쇄제판용 롤상 사진필름 (폭이 610mm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m이하인 것)	11,821	14,520	22.8
인쇄제판용 롤상 사진필름 (폭이 105mm를 초과하고 610mm이하인 것)	3,484	5,297	52.0
합계	38,875	53,018	36.4

자료: 관세청

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과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각각 1075만달러, 1041만7천달러치가 수입돼 전년 동기 실적 1010만7천달러, 533만6천달러보다 6.4%, 95.2% 증가했으며 약보도 137만달러치가 수입돼 전년 동기의 71만8천달러보다 90.8%가 늘었다. 설계도와 도안과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는 17만1천달러, 183만달러치가 수입돼 각각 전년 동기 실적인 11만8천달러, 131만5천달러치보다 44.9%, 39.2% 늘었다.

이외 지도·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우표·수입인지·기타 유가증권은 각각 157만3천달러, 140만6천달러치가 수입되는데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165만4천달러, 1968만달러보다 4.9%, 23.0%가 감소했다.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껌린더는 17만9천달러치가 수입되는데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46만달러보다 61.1%가 감소,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기타인쇄물은 2200만3천달러치가 수입돼,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2482만3천달러보다 11.4% 줄었다.

제책기계 수출입 실적 증가

인쇄기 수출실적은 6억5542만6천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실적인 5536만5천달러보다 무려 1083.38%가 늘었지만 이는 HS 코드 재분류 과정에서 사무용프린터, 복사기 등이 인쇄기에 새로 편입된 결과다. 이를 제외하면 제책기계와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현상기기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제책기계는 411만달러치,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현상기기는 78만8천달러를 기록, 각각 전년 동기 실적인 245만2천달러,

31만6천달러보다 67.6%, 149.9% 증가했다.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는 3173만9천달러에 머물러, 3206만2천달러였던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으며 활자의 주조용·식자용기기 및 부분품은 88만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132만7천달러 대비 33.7% 감소했다. 지난해 실적이 없었던 인쇄제판용의 카메라는 1만3천달러치가 수출됐다.

인쇄기의 수입액도 8억5591만2천달러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2억2399만6천달러보다 282.1% 증가했지만 통계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 제책기계는 2076만2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1206만1천달러보다 72.1% 증가했으며 활자주조용·식자용기기 및 부분품, 인쇄제판용의 카메라의 수입실적은 각각 473만2천달러, 100만6천달러에 달해, 각각 전년 동기 실적인 339만8천달러, 82만3천달러보다 39.3%, 22.2% 늘었다.

이외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와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현상기기는 각각 1996만8천달러, 177만6천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실적인 2385만3천달러, 277만5천달러보다 16.3%, 36.0% 줄었다.

한편, 인쇄물관련 주요 부자재인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의 전체 수입액은 5301만8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실적인 3887만5천달러보다 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